

3444  
3460.911

I. 이 책자는 国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拠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查研究－軍事

# 金日成後繼問題와 軍事關係分析

研究執筆責任 **李 善 錕**  
(略歷)  
延世大學校 政法大學 政治學科卒 (1958)  
日本 東京大學院卒 (1962)  
延世大學校 大學院卒 政治學博士 (1970)  
延世大法政大學 教授 同 戰略問題研究所長 (1970)  
国土統一院 非常任研究委員 (現在)

刊行責任 **金 諄 教** (調查研究室 補佐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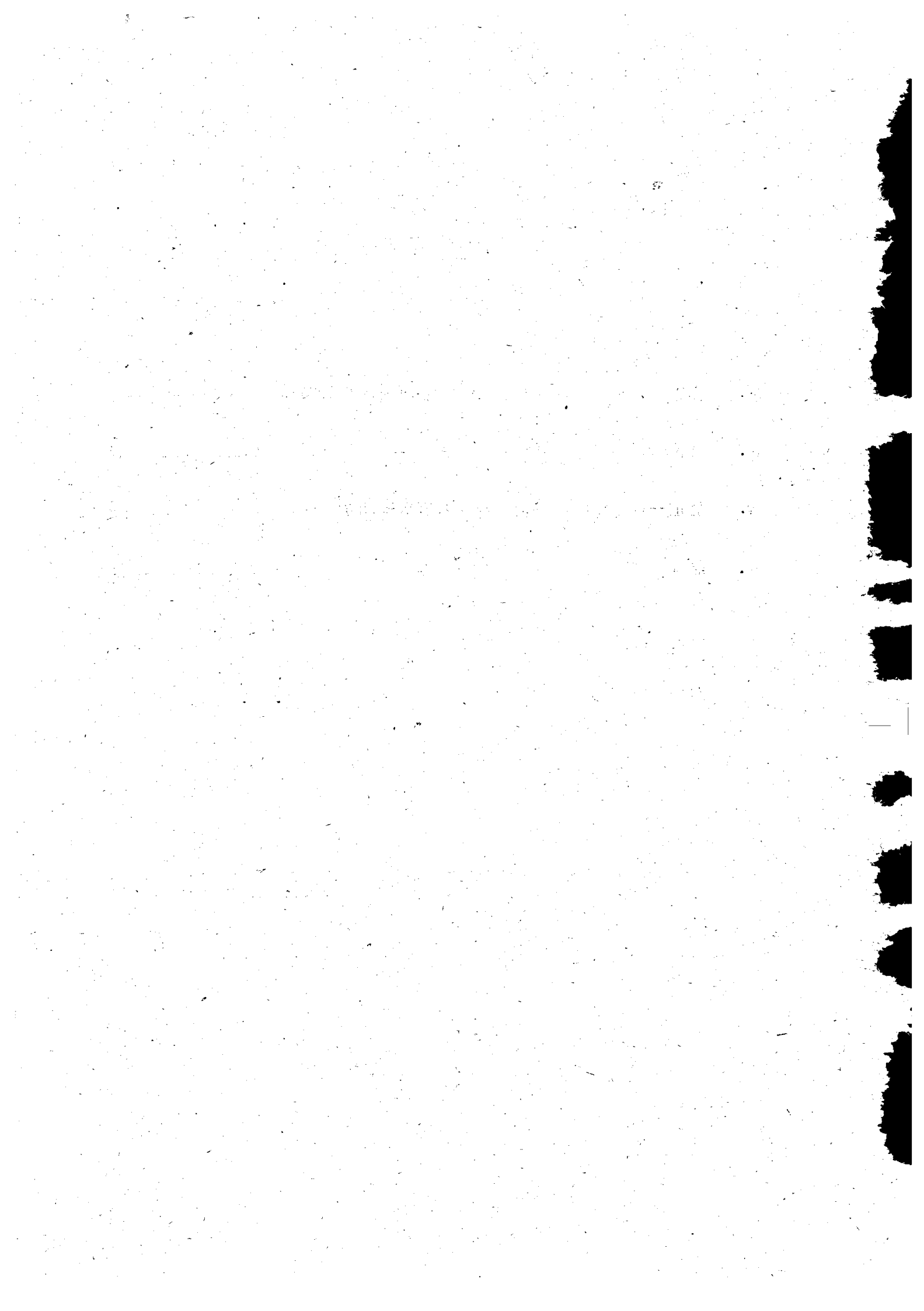
{ 김일성후계문제.  
김정일후계  
3대혁명성조  
북한양곡문제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차 례

1. 問題와 제기	1
2. 金正一 後繼問題를 中心한 党軍과 權力關係	5
3. 三大革命小組와 軍과의 關係	15
4. 金正一의 登場과 北韓의 軍事傳統問題	31
5. 結論	37



## 1. 問題와 제기

最近 北韓의 權力構造에 있어서 커다란 變化를 야기 시켜왔다. 특히 金正一의 金日成 後繼問題라는 것을 中心하여 權力關係의 質的이며 構造的인 變化를 경험하여 온 것이다. 權力關係라고 할 때에는 과거 30 여년간 독재를 하여 온 金日成의 權力關係의 變化를 가져 올 징조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點이며, 北韓權力의 構造的인 變化라는 것을 金正一의 등장과 함께 - 「三大革命小組」라는 특<sup>약</sup>화된 權力組織을 그 기초로하여, 北韓社會 전역에 깊숙히 그 權力을 신장하면서 北韓權力構造의 구조적 變化를 서서히 進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sup>點</sup>이 제기된다. 金正一은 과거 金日成의 軍事傳統이나, 人的인 軍部나 党中央委의 權力과는 세대적으로나 思想的으로나 그 「에 리프체층」이라는 관점에서나 판이한 權力形成을 出現시킬 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이다. 특히 過去의 北韓의 權力概念에 있어서 「黨」과 「軍部」라는 概念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概念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北韓에는 「軍部」라든가 하는 概念은 形成되어 질 수 없는 概念이었기 때문이다. 北韓의 「黨」과 「軍部」라는 <sup>註 1)</sup> 것은 人的으로나 權力的으로 相互性이 있었으며 「黨」과 「軍」의 연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權力性」이라는 性

註 1) 黨·軍關係에 대한 一般的理論은 아래 論文을 參照하라.  
「北韓政治論」(極東問題研究所)에서 「黨과 軍의 關係」  
pp. 223 - 241

격을 두드러지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黨”과 “軍”이라는 것이 人事移動에 있어서 “交換性”이 강한 것이었고 “人事”라는 權力的인 交換에 있어서도 人事의 “二重性”을 크게 띄고 있었던 것이 北韓의 “黨과 軍”의 權力的인 意味였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날 北韓의 “黨”과 “軍”이라는 權力的 동일성이나 交換性에서 처음으로 “金正一의 後繼問題”를 기점으로하여 北韓에 있어서 “軍部”라고 하는 概念과 黨의 組織이라는 각도에서 權力的으로 그 “分離”를 생각할 수 있는 기점이 역사적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處에서 인 것이다.

勿論 앞으로도 北韓에 있어서 “黨”과 “軍”이라는 것이 “軍部”라는 것을 그 概念으로하는 두가지의 權力關係가 完연하게 “分離”를 명백히 경험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金正一의 등장과 함께 北韓의 權力構造에 있어서 과거의 “黨·軍關係”의 確立성과는 다른 측면이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다는 研究의 기점을 찾을수 있으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軍部”가 형성되고 더욱이나 상대적인 의미에서 “軍部”의 政治的 獨立이 可能하리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적어도 問題處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듯이 黨組織의 “二重性” 즉 黨組織과 거의 맞먹는 “三大革命小組”가 깊숙히 權力構造化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또는 金正一과 그의 權力上的 中心 人物들인 “金日成大學出身”이라는 계층에서 보듯이, 과거의 軍黨關係를 權力的으로 形成하고 있던 軍事傳統과는 区分되는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明白한 것이다.

本論文은 이러한 問題 제기를 기점으로하여, 특히 金正一의 등장과 함께 이에 對한 北韓의 "軍黨關係"를 다시 한번 分析 검토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고있다. 研究의 範圍는 첫째가 金正一의 등장과 함께 그 權力形成에 있어서의 黨과 軍의 關係를 기초적으로 論하고, 둘째는 權力構造上 중요한 構造이며, 金正一의 權力的인 부상과 함께 그 기초가 되고있는 "三大革命小組"가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可能的한 한 "黨軍關係"에 어떻게 組織的으로, 權力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分析 검토한다.

셋째로는 이러한 여러가지 要因 分析과 함께 앞으로 金正一의 등장과 함께 北韓의 전반적인 "黨軍關係"뿐만이 아니라, 北韓의 軍事傳統에 어떻게 영향 미칠 것인가 하는 點을 검토하는 일이다. 끝으로 이러한 要因이, 앞으로 北韓의 "黨軍關係" 뿐만이 아니라 北韓의 權力構造의 核心이었던 黨軍關係의 變質에서 기인하는 北韓의 "權力構造"에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結論으로 유도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本論文의 研究範圍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몇가지 연구상의 問題點이 있다. 그 첫째는 특히 北韓의 權力이나 軍事問題에 있어서 항상 研究의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자료의 貧困이나 그 秘密性 때문에 언제나 장벽에 부딪힌다는 것이고, 또한 權力的인 概念등을 파악하려 할 때에 가령 "黨軍關係" 등에 대한 法律的인 "組織"이나 "制度"상의 黨軍關係

를 연구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보다 깊이 制度의 “실질상의 動態”를 把握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인 것이다. 따라서, 본 研究도 可能한 限의 자료 活用과 함께 언제나 研究上의 애로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면서, 最少限 北韓의 權力動態에 대해서 이러 이리한 점을 考察하거나, 研究의 方法上의 問題를 제기하면서 研究를 進行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北韓의 權力關係의 미묘한 “心理的”이든 “心情的”인 측면의 研究는 權力構造의 變化나 權力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이의 研究에는 절대적인 자료 부족과 接近이 달라야 한다는 點을 역시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本論文은 위의 問題 제기와 研究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可能한 限의 자료와 가설 등을 前提하면서, 北韓의 軍黨關係의 權力的인 變化나 變質을 金正一의 등장이라는 權力變動의 中心을 考察하면서, 北韓의 黨軍關係의 考察을 통한 北韓의 變化를 考察·分析하여 본다.



## 2. 金正一後繼問題를 中心한

### 党·軍과 權力關係

金正一이 金日成의 後繼者로써 北韓의 勞動党 中央委員會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이 처음으로 보도 된 것은 1977年 2月 25日 日本의 共同通信의 보도에서 였다. 이 보도의 根拠는 在日 朝總聯의 “소식통”으로 되어 있었고, 北韓이 이러한 形態로 보도를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의 뒤를 이어서 日本의 각 新聞은 다양한 보도를 하게 되었다. 그 요지를 보면 (註2)

- 1) 金正一은 北韓의 最高 決定 機關인 勞動党 中央政治委員會에서 最終的으로 金日成의 後繼者로 결정되었다.
- 2) 金正一에 依한 “唯一的 指導體制” 確立을 위해서 노동당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 3) 조총련에서는 이러한 決定을 받들어 2月 2日과 3日 양일간에 걸쳐서, 全國에 일제히 特別幹部 講演會를 열어 金正一을 “唯一的 後繼者”로서 한다는 北韓의 지시를 傳達하였다.
- 4) 조총련 李珍珪 副議長이 2月 2日 報告書에서
  - ㄱ. 後繼者 決定의 理由
  - ㄴ. 金正一의 後繼者로서의 資質
  - ㄷ. 金正一指導體制 確立을 위한 조총련의 임무와 과제를 보고
- 5) “後繼者 決定”은 年內에 開催할지도 모를 第6次 党大會

註2) “統一日報”(77年 2月 25日字) “党政治委員「金正一推挙」の背境をさじる”

까지 北韓 “內部”와 “在外” 組織에 內部的으로 “침투”시킨  
後 이를 계기로 金正一에 對한 新選 候補人을 選出 할 것이라  
는 내용이었다.

現在까지 이미 金正一의 後繼者 問題에 있어서 黨政治委員會에서  
正式으로 決定되었다는 確認은 할 수 없었으나, 언젠가는 이러한  
政治委員會에 의한 “後繼者 承認”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견하고  
있었다. 따라서, 金正一의 계승 승인 內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할 點은 報道 內容中 “北韓의 內部”에  
“침투”시킨 이후에 공식적으로 後繼者 公表를 할 것이라는 點이  
다. 北韓 “內部”라고 할 때에는 단순한 대중적인 意味만을 갖  
는 것은 아니다. “內部”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軍部”組織에  
대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말 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까지 金正一을 위하여 軍部 “浸透”에의 方針은 明  
白하게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은 北韓의 黨軍關係라는 것이 蘇聯이나 中共이상으로 密接한 關係  
에 있기 때문에, 北韓 본래의 軍內의 黨組織을 통해 철저하게  
“浸透”되고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의 黨軍關係의 특징은 蘇聯이나 中共의 黨軍關係 이상으로  
結合되어 있다는 點이다. 北韓의 黨政治 機關이나 政治要員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일면에서는 黨의 얼굴이며

당이 軍을 統制하는 組織이다.(註3) 다른 얼굴은 軍事 專門家의  
얼굴이며 그는 이면에서는 完全한 軍内部의 人間이며, 軍事 中에서 精  
神的인 分野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적인 職業 軍人인 것이다. 北韓  
의 黨과 軍關係에 있어서도 二重人格的인 要員이 黨軍에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黨軍關係가 密接한 關係를 同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北韓의 黨軍關係의 特徵인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黨軍事關係라는 것은 자연히 “黨과 軍의 軋轢”  
이라는 것은 상상 할 수 없으며, 黨과 軍의 区分이 상층 構造에  
서 分離될 수 없는 것이며 密着되어 있는 것이다. 北韓의 黨軍  
關係는 “黨의 黨을 위한, 黨에 依한” 軍隊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金正一의 後繼問題에 대해서 後繼者 캠페인은 “軍의 黨  
組織”을 通하여서 치열하게 “浸透”되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도리어 그 逆이라면 非論理的이라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金正一의 後繼者 任命 過程에서  
黨軍關係의 密着을 認定하면서도 党中央委에서의 金正一에 對한 後  
繼支持者의 權力的인 動態인 것이다. 現在까지 산만하게나마 나  
타 난 것으로서는 “金正一 後繼者運動”에 있어서 이를 權力的으  
로 支持한 것은 “吳振宇”등을 中心한 北韓의 軍部라고 할 수

註3) 北韓이 基本的으로 모방하고 있는 黨軍關係에 대하여는 아래  
論文을 参照하라.

“新防衛論集”, (77. 3月号)에서 “ソ連軍이 政治機關”  
-ソ連共産黨의 將軍 컨트롤-, 宮內邦子(日防衛研修所員).  
pp.54-92.

있다(註4) 現在 “吳振宇”는 黨과 人民 武力部를 장악함으로써 最高의 權力을 軍事的으로 장악하고 있는 人物이다. 이러한 “吳振宇”를 중심한 金日成의 直系이며 이른바 “빨치산”系列의 人物들이 金正一의 金日成 後繼를 支持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評價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이를 두가지 面에서 評價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첫째는 “吳振宇”를 상징으로 하는 빨치산” 직계들은 金日成과 함께 “老幹部”층으로서 大部分이 金正一의 탄생으로부터 오늘날까지 金正一의 生成過程을 어릴 때부터 지켜 본 人物들이라는 點이다. 즉, 이를 다른 角度에서 評價한다면 이러한 “老幹部”들은 金正一의 後繼者계승, 즉 權力의 座에 올라간다 하여도 “老幹部”층과 權力的인 충돌이 일어 날수 없다는 안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評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吳振宇”등은 元老로서 “金正一”을 어릴 때부터 키웠 으므로, 앞으로 老幹部와 金正一의 權力 장악 간에 있어서 相互間의 “權力的인 紛爭”이 없다는 즉 金日成의 死後나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도 “肅清”이라는 形式으로 老幹部를 정면으로 對抗하리라는 可能性이 없다는 점에서 “老幹部”의 金正一 支持를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吳振宇”등의 “老幹部”들은 金正一이 權力을 장악한다 하여도 결코 相互間의 權力的인 마찰이라는 것은 없다는 데서 기인하는 사유가 “老幹部”들로 하여금 金正一을 金日成의 後繼者로 支持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를 타당화 시켜 주는 資料로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즉 76年의 조총련의 幹部學習 文獻에서 나타난 것을 보

註4) 金正一에 대한 支持가 吳振宇等에 의한 것이라는것은 頻頻히 報道되어 왔다.

던 그 一章에서 (註5) “後繼者 問題는 共產主義 위업의 근본 問題와 關聯하며 首領에 의해서 開拓된 革命偉業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進行되기 때문에 問題가 제기되는 것이다. 단일 이 問題가 올바르게 解決되지 못한다면 “民族의 生存에 關係되는 중대한 事態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다시 金正一의 후계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레닌은 스탈린을 後繼者로 지정하였으나, 스탈린은 後繼者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때문에 革命과 建設은 修正主義에 빠져 人民은 고통에 빠졌다”.

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勿論 “李珍珪”의 報告는 北의 後繼者 설득 論理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보면 後繼者 사유에 對한 理由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金日成이 後繼者없이 죽을 때에는 스탈린 이후의 “修正主義”라는 「후르시초프」現象을 두려워 하는데서 기인하는 <두려움> 에서라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 (註6) 이를 기초로하여 볼 때에 “吳振宇”등 老幹部가 金日成 死後나 權力으로부터 물러 날 때에 을 “修正主義”라는 現象, 즉 “老幹部”들의 肅清이나 權座로부터 退陣을 強要 當할 「후르시초프」現象을 두려워하여 金正一의 後繼를 支持하였다고 評價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서는 “吳振宇”등 “老幹部”가 金正一을 後繼者로 支持하였을 때에는 後繼者 問題 自体를 金日成의 直接的인 권유와 “老幹部”들의 呼吸의 一致로 始發되었다고 評價될 수 있는 것이다. 즉 金日成의 간곡한 主張으로 老幹部들은 이에 金正一의 後繼를

註 5) “統一日報”(’77.2.26字) 76年の 李珍珪의 幹部學習文獻

6) “統一日報”(’77.2.26字)

支持 하였으리라는 뜻인 것이다. 金日成 스스로가 자기 아들을 後繼者로 점차 설득 하므로서 “老幹部”들이 이에 적극 추종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資料에서 볼 때에 “老幹部”들은 첫째가 “修正主義”라는 金日成 死後의 기우에서 적어도 金日成의 친자식인 金正一이라는 “唯一한 後繼者”를 選定 함으로써 “老幹部”들은 안전하게 金日成의 歿後 후에도 權力的으로 紛爭을 야기 시키지 않으리라는 뜻에서 金正一을 支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最少限 金日成과 金正一間의 權力鬭爭이 없으리라는 점도 유의 하였을 것이라고 평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단 結論的으로 金正一의 後繼者 계승 문제는 적어도 黨幹部 중에서도 北韓의 傳統的이며 유일한 政治 勢力인 “老幹部”의 支持下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重要的 點으로써 “老幹部”는 곧 黨幹부를 말하며, 黨幹部는 傳統的인 軍部라는 政治勢力을 근원적으로 일단, 그 기초 위에서 後繼者 問題가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黨幹部라는 中心的인 勢力인 “빨치산”계열의 支持를 기초로 하여 출발 함으로써 軍部の 기초를 업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後繼者 問題가 金日成 스스로의 “意思”에 의해서 진행 되었다는 점에서 集約 시킬 수 있다. 75年 黨 기관지인 “勤勞者”(10월호)에 소개된 林春秋의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首領의 革命事業을 完成시켜 가는 戰鬪的 黨으로 強化. 發

展시킨다는 것은 朝鮮 共產主義者의 가장 숭고한 革命的 義務이다"라는 論說 속에서 아래와 같이 金正一 支持가 金日成에게서 연유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註7) "위대한 首領의 革命思想을 대를 이어 繼承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革命思想의 繼承形式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어서 "首領의 黨으로써 계속 強化 發展시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金正一의 繼承의 타당성을 강조한 것이며, 다시,

이어서 "黨의 革命的 지도를 철저히 實現할 때에"라고 말함으로써 金日成의 意思가 곧 金正一 後繼에 對한 意思인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金正一의 後繼 繼承 問題는 金日成에게서 연유하고 있는 것이며, 당연히 "老幹部"들을 後繼者 繼承에서 동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論理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後繼者 進行過程에서 "老幹部"와 金正一 後繼問題 間에는 상층 構造上 權力的 意味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당분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集約하면 金正一의 後繼 問題는

ㄱ. 金日成과의 權力的인 갈등이 없으며

ㄴ. "老幹部"와의 權力的인 갈등없이 進行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ㄷ. 現在로서는 "빨치산"계열의 "老幹部"들에게 對抗할 만한

---

註7) "統一日報" ('77.2.26字), ('75.10.21字) 参照.

勢力이 없으므로 사실상 金正一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北韓 內에서는 당분간 없으리라고 거의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ㄹ. “老幹部” 즉 “빨치산”系의 상층 構造에서 부서의 支持는 더욱이나 北韓內에 “軍部”라는 것이 政治的인 權力과의 상이한 것이거나 分離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軍과의 關係도 黨軍關係의 特性으로 당분간은 軍부의 저항이라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앞으로 黨과 軍部라는 것이 어쨌든이나 “分離”作用이 可能할 때만이 問題가 제기될 수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ㄱ. 金正一의 實權을 장악하고 과거의 軍事傳統을 벗어나는 時期

ㄴ. 金正一 世代라는 “老幹部”世代와 달라질 때에 올 世代差에서 기인하는 軍부층과의 分離作用의 時期

ㄷ. 後에 論할 金正一의 새로운 黨組織과는 並行하는 “3大革命小組”라는 組織과 軍部側과의 分離作用에서 기인하는 問題가 제기될때 비로서 問題가 제기될 수는 있다고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가 서서히 아래와 같은 사유로서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ㄱ. 現在로서는 “吳振宇”를 정점으로 하는 확고한 金正一



体系를 “老幹部”를 기초로 하는 權力体系가 확고하게  
金日成이 願하는 대로 “傳統的”인 패턴으로 進行되고  
있다.

나. 그러나 사실상 “老幹部”들은 점차 살아지고 있다는 점이  
다.

“老幹部”들은 하나 하나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러한 “老幹部”들의 退化 現象<sup>象</sup>은 결국 金正一을 반드시  
權力에서 노출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  
이다.

이상과 같은 評價에서 당분간은 金正一과 軍部間의 分離作用이나  
權力問題는 現在로서는 評價하기 어려운 일이며, 그러나 앞으로 問  
題點은 있다고 評價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大前提는  
傳統的인 黨과 軍의 일치점이 분리될 때와, 둘째는 金正一 世  
代와 旧世代間의 계층이 分離되기 시작 할 때에는 일단 問題가  
表面化 하리 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만, 지적 해야 할 것은 金正一의 後繼者 問題에서  
權力的인 葛藤이라는 것은 金正一과 金英柱 間의 한 家族間의 權  
力鬭爭이라는 世襲的인 權力的 葛藤 만이 存在한다는 점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미 李珍珪 學習報告에서 지적되고  
있다. (註 8) 즉

---

註 8) “統一日報”( '75.10.17 字) 参照.

“金正一 동지의 唯一的 指導體制를 確立하는 것을 妨害하던, 黨內의 오랫동안 숨어 있던 反黨, 分派主義者들은 여지없이 粉碎 되었다.” 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北韓 內部에서 權力 繼承 問題를 위요하고서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공공연히 발표하는 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金英柱와의 갈등에서 기인하는 “分派”나 “反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金日成 一家 內에서의 갈등이 다만, 表面化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결코 黨 下層構造까지의 權力 갈등이라고는 現在 볼 수 없는 것이다. 도리어 이러한 “金正一의 唯一的 指導體制”가 確立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粉碎”를 강조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金正一의 唯一體制가 確立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金英柱와의 權力鬭爭은 일단락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도 現在로서는 黨, 軍의 분리나 이의 가상적인 처동 등을 예상한 權力鬭爭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評價될 수도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되어야 할 점은 金正一의 支持 勢力인 “老幹部”들이 첫째 高齡이라는 점과 둘째 이들은 점차 現職에서 물러 나가거나 死亡하여 가고 있다는 점등에서 金正一에 對한 支持勢力의 기반이 問題되는 것이다.

“빨치산”系 以後의 軍部와 金正一 一黨 軍關係라는 각도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表裏일체의 단결력을 權力的으로 과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三大革命小組”의 젊은 층 혹은 “테크노크라트”의 강력한 부상으로 軍部와의 異質 現象이 야기될 때에 軍部와의 關係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하는 問題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3. “三大 革命 小組”와 軍과의 關係

上記 問題를 관련시킬 研究資料도 역시 부족하다. 그러나 現存하는 資料를 中心하여 問題點을 제기시켜 본다.

오늘날 北韓의 政治에 있어서 指導部 或은 지도계층에 있어서 그 어떤 分離 作用이 가능하다고 評價한다면, 金正一의 權力 繼承과 함께 問題가 된 金正一의 組織이라고 할 수 있는 “三大革命 小組”라는 權力組織이며, 이것이 軍과의 실질상의 마찰이나 갈등 같은 것을 어떻게 진행하여 갈 것인가 하는 問題에서 찾아야 하리라 본다. 北韓의 오늘날까지의 黨·軍의 性格과 歷史라는 것은 黨軍一致라는 것이 실질상의 歷史였다고 評價할 수 있다면 黨의 變質은 곧 軍의 變質을 意味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三大革命 小組”라는 새로운 권력 기반이 탄생 할 때에 새로운 權力 組織이나 기반에서 기인하는 北韓 權力構造의 변화는 필히 軍이라는 것을 문제 삼게 되는 것이다. 그 理由는 組織上으로 黨軍一致에서 기인하는 組織上的 명령 系統이 같았기 때문에 새로운 權力組織의 재편성은 반드시 軍部の 명령 系統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現在까지는 “三大革命 小組”라는 特異하며 새로운 組織이 “直接的”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특히 軍部に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가 하는 問題도 정확하지 않다.

“三大革命小組”의 組織上的 重要性은 北韓의 黨軍一致라는 組織上的 各도에서 관찰 할 때 “三大革命小組”라는 政治組織의 새로운 變化와 등장은 필히 北韓의 政治를 變化하게 하고 있다는 事實과 이는 黨·軍一致라는 各도에서 軍事組織에도 적지않은 影響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三大革命小組”는 기본적으로 經濟的인 性格을 강력히 띠고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三大革命小組”가 그 後에 있어서도 “三大革命 붉은기 쟁취 運動”에서 보듯이 經濟的인 性格의 지향성이 강한 政治組織上的 運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註9)

本章에서는 “三大革命小組”가 어떻게 北韓 政治組織에 影響을 주고 있으며, 이가 미칠 軍事的인 組織上的 變化를 예측하는 데에 論點의 중점을 두고 관찰 評價한다.

“三大革命小組”의 기본 目的은, ①첫째 經濟 과탄을 막기 위한 目的으로 노동력의 동원에 있었고 ② 둘째는 보다 큰 目的이라고 할 수 있는 金正一의 기력 기반의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三大革命小組”의 기원은 1970年 11月에 있었던 北傀 第5次

---

註9) “三大革命小組”에 關하여 상세한 報道는 “統一日報”  
 ('75.12.10 字) ('75.12.11 字) ('75.12.12 字)  
 (“ ” 13 字) (“ ” 16 字) (“ ” 17 字)  
 (“ ” 18 字) (“ ” 19 字) (“ ” 20 字)  
 (“ ” 23 字) (“ ” 24 字) (“ ” 25 字)

党大会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하였다. 이 以前에는 산만하게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이란 「스로건」을 使用하고 있었으나 五次 党大会에서 비로서 “三大革命”으로 發展하였고, 이러한 “三大革命”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그 組織으로서 “三大革命小組” 運動이 組織된 것이다.

“三大革命小組”는 대체적으로 3명에서 5명으로 組織되고 있으며 한개의 단위로 하여 小組를 구성하고 工場, 企業所 특히 軍에 까지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重要的 點은 軍에까지 派遣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現地에서 같이 生活하며 思想·技術, 文化革命을 지도 한다는 것이다.

小組 人員의 性格은 (註10)

첫째, 젊은 층의 여성 黨원으로 構成되는 것으로.

둘째, 또는 大學生등으로 構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三大革命小組”가 金正一의 組織的인 기반이라고 評價 될 때에 党과는 별도의 命令系統이 成立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三大革命小組”에 대한 지휘가 金正一에 依해서 進行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三大革命小組” 運動 그 自体가 後繼者 翁稔을 위한 運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金正一 後繼를 위한 體制 確立의 복합적인 目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註10) “北韓用語大百科” p.186. 503 參照

“三大革命小組”에 대한 直接的인 언급은 1975年 2月 28日서 부터 3月 4日에 이르는 사이에 열린 全國工業 熱誠者 大會에서 的 金日成의 演說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그의 演說內容中 “三大革命小組의 발단”에서 (註11)

“우리들은 “三大革命小組”를 組織하여 派遣할 時에 “三大革命小組” 派遣의 目的과 그들이 現地에서 할 事業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三大革命小組”의 成員들에게 小組員은 現지에 가서 幹部들을 毒려하고 도울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의 幹部들을 “毒려”하고 “돕는” 일이 小組員들의 일이며 目的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革命 小組라는 組織은 “黨” 위의 黨組織으로 評價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黨 위의 黨組織은 黨軍一致라는 黨軍關係에도 크게 영향 줄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金日成 스스로가 “三大革命小組”와 有關한 發言에 말하고 있듯이 初級 軍官도 “배운 사람” 出身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三大革命小組”에 대한 강력한 評價를 하고 있다.

上記한 全國工業 熱誠者 大會에서의 金日成의 演說에서 보면 (註12)

“青年 [인 테 리]는 노동자 계급과 힘을 합하여 낡은 思想에 對 對하는 鬪爭을 전개하고 노동자 계급과 老幹部, 青年인 테 리가

註 11) “統一日報” ( '75.10.22 字 )

12) “統一日報” ( '75.10.23 字 )

힘을 합하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는 귀중한 經驗을 얻었습니다. 나는 “三大革命小組”의 成員들이 현재와 같이 스스로 革命化하고, 勞動者 계급화하는 鬭爭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훌륭한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을 할 수 있다고 確信 합니다”.

고 공공연하게 金日成은 “三大革命小組”에 對한 目的과 役割에 對해 강력한 評價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黨”위의 “黨組織”의 확대와 評價는 특히 金正一과의 關係에서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三大革命小組”의 責任者는 後繼者로서 勢力確立 중인 金正一 黨秘書局長이라는 점에서 重要한 것이다. 이러한 “三大革命小組”과 金正一間的 關係는 後繼者 翁翕과 함께 黨 위의 “黨組織”이라는 각도에서 對연 軍部에 對한 黨軍關係의 軍内部의 黨組織에도 크게 影響을 줄 것임은 말 할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軍内部의 黨的인 組織의 變化는 특히 南北韓關係에서, 그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組織의 기초가 “三大革命小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三大革命小組” 이후의 黨軍關係는 기본적으로 그 變化를 거치고 있다고 評價되어야 하는 것이다.

“金正一”과 “三大革命小組”間的 關係에서 앞으로 軍部和 黨과의 關係의 部分的인 分離作用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즉, 75年의 全國工業熱誠者

大會에서의 “三大革命小組”에 대한 평가를 할때에 나온北韓의 政治勢力에 대한 分離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金日成의 演說에서

“오래된 幹部”와 “젊은 幹部”와의 두가지의 카테고리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分類에서 또한 주목 할 점은 “老幹部”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이다.

다만 金日成은 여기에서 金正一에 依해서 영도되는 “三大革命小組”  
를 크게 評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오래된 幹部”와 “젊은 幹部”와의 구분의 기준에 착안  
하고 관찰하거나, 또한 “三大革命小組”를 통한 軍部에 대한 영  
향을 감안한다면 重要的 變化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그 후 75年の 党創建記念式辭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지  
고 다시 三分類法으로 설명된다. 즉 金日成의 党創建記念 演說  
에서(註13)

첫째, “老革命家”

둘째, “오래된 黨員”

셋째, “젊은 黨員”

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으로北韓 지도부의 “三大革  
命小組”를 介入한北韓 指導部 内部에 權力關係의 內紛을 의미하는

---

註13) “統一日報” (1975.10.22字)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의 지도부 내부에 있어서의 “三大革命小組”의 젊은 幹部들의 直接的인 現地派遣 이후의 相互 충돌 등을 우리들은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權力 分類에 대한 說明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75年 全國工業熱誠者大會에서의 연설 속에서 “三大革命小組의 발단”이라는 題目的 項에서의 언급에서 “三大革命小組”를 높이 평가하면서, 新·舊의 勢力關係에 언급하는 중요한 北韓의 앞으로의 權力分類를 의미하는 要因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註14) 즉,

“現在 人民經濟 部分에서 활약하고 있는 넓은 幹부는 우리 모두의 귀중한 黨의 보배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일단 오랜간만의 老黨員들에 처한 評価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곧 이어서 다음과 같은 추가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와같이 老幹部들은 지금까지 많은 일을 수행하였고 중요한 役割을 하여 왔음니다만, 해방이후 30年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며, 그들의 수준도 급속 發展하는 현실에 뒤를 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黨은 그들이 현실의 발전에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土曜學習, 水曜講演會를 위시하는 집단적 학습체계를 수립하여

---

註 14) “統一日報” ( '75.10.22 字 )

專門적으로 (每年 1個月씩 正規의 學校에서) 學習하는 體系  
를 수립하였읍니다.

經濟의 규모가 크게 되고 經濟建設의 全 부분이 現代的 科學  
技術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들이 所有하고 있는 知識과  
經驗만으로는는 社會主義 建設을 성공리에 추진한다는 것과  
黨의 要求인 速度戰을 강력히 전개할 수 없읍니다\*.

고 함으로써 요는 “낡은 幹部”에 對한 時代에 뒤떨어 진다는  
평가를 준렬히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勢力의 分離過程은 組織上으로도 이미 설명하고 있듯  
이 중요한 要因을 제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北韓의 權力組織은 黨軍關係에서 하나였다. 그러나 72년에  
組織된 “三大革命小組”에서 주목할 점은 “三大革命小組”가 黨中  
央 直屬 下에 組織된 政治組織에도 불구하고, 黨組織과는 별도의  
組織이라는 점이다. 黨組織과는 상대적인 독자성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黨組織과 對等한 地位를 確保하고 있다는 點에서 더욱 중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金日成의 演說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註15) 즉,

“우리 黨이 人民經濟의 각 부분에 三大革命小組를 派遣한  
것은 三大革命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중요한 조치였읍니다.

---

註 15)

물론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서의 單位에서 빠짐없이 黨組織이 있기 때문에 黨組織을 통하여서 三大革命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事業을 단순히 하부의 당조직에만 맡겨 둘 수 없으며, 党中央이 직접 三大革命小組를 派遣하여 당조직과 三大革命小組가 협력하여 三大革命을 추진 하도록 하였습니다. \*

고 함으로써 이는 사실상 당 위의 별개의 黨組織을 조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北韓의 黨軍關係에서 軍内部에 대한 당조직이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다면 三大革命小組의 주 목적이 經濟部分이라 하나, 軍内部에도 깊이 組織上으로 영향하게 됨은 말할 필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評價해야 할 것은 이러한 組織上的 “三大革命小組”라는 勢力의 재편성 과정은 첫째 過去에 있어서 黨軍關係가 人的으로나 組織에 있어서나 完全히 하나라는 軍事的인 전통에서 처음으로 세력상으로 당연히 젊은층과 軍部가 점차 分離되거나, 적어도 식별하기 쉬운 勢力分離가 일어난다는 것이 特徵이다. 둘째는 이러한 權力上的 분리 뿐만이 아니라 軍部和 “三大革命小組” 成員이라는 두 組織間的 對立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分析인 것이다. 앞으로 “老幹部”와 젊은 幹部間的 分리가 야기된다면 老幹部는 주로 軍을 중심한 勢力으로 人的으로 集約 될 것이며, 젊은층은 역시 軍事的인 과거의 “빨치산”의 傳統은 물론 韓國戰爭이라는 그들이 말하는 “해방戰爭의 傳統”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軍部와 “테크노크라트” 間의 分離 혹은 對立이라는 것을  
남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軍部라는 것이 일반 “테크노크라트” 혹은 “시  
비리안”이라는 것과 分離되는 첫 과정, 혹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角度에서 평가한다면 金正一後繼 추진의 기초인 “三大  
革命小組” 勢力이라는 젊은 幹部와 “오래된 幹部 혹은 黨員”  
그룹間的 分離作用은 組織上으로나 權力上으로 分離過程을 걸을 수  
밖에 없으며, 필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중요한 黨軍關係  
라는 새로운 要因이 야기 될 수 있는 것이다.

“테크노크라트”의 과연 軍을 支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問題가 되는 것이다. 더우기 金正一 後繼運動의 일화에서 기인한  
“三大革命小組” 세력과 軍部라는 것이 조화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그 性格上 權力的으로나 조직상으로 문제점을 야기 시킬 필  
연적인 條件을 앞으로 구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문제점에서 金正一이가 黨만을 장악하여 과거처럼 軍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다. 過去에 있  
어서와 北韓의 黨軍關係라는 것은 黨軍이 人的으로나 權力的으로  
完全 동일하거나 일치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앞으로 人的인 一面에  
있어서나, 權力面에 있어서나, 특히 조직면에서 一致性을 유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軍部の “시비리안”

과의 “分離” 과정을 예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바침하는 음성적인 國家組織이 이와 並行하여 조직되어 가는 것이다. “三大革命小組”가 공개적으로 軍과의 關係를 유지할 수 없다는데 對한 다른 組織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것이 “社會安全部”와 “政治保衛部”의 分離로 나타났다고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1973年 2月 15日 金日成의 지시에 따라(註16) 즉, “社會安全部”와 政治保衛部 업무의 分離를 기초로하여 73年 5月 社會安全部內의 정치 보위국을 독립시켜 확대케하여 國家主席 직속하에 國家政治 保衛部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 첫 설치 目的은 金正一 後繼體制의 確立을 위한 것으로서 反黨, 反體制 勢力을 組織的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감시 活動은 기관 단체등의 組織과 黨政府기관의 高級幹部까지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南北對話를 기화로 한 담당자나 北韓 주민의 동요를 감시하는 것이다. 國家政治保衛部 金日成 直屬 下의 비밀감사 감독기관이며, 특히 北韓內의 黨政關係의 高級幹部의 불평, 불만 특히 金正一에 對한 불평불만 등의 後繼者 問題에 대한 대비로써 이에 대한 적발을 주요 事業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의 組織인 國家 정치보위부는 주민의 思想을 조사하며 組織은

---

註16) “北朝鮮研究”(1975.9月号) PP.21~23 參照

약 六万名의 要員이 道, 市, 郡, 里 各種의 政府機關에 派遣되어 비밀리에 감시 조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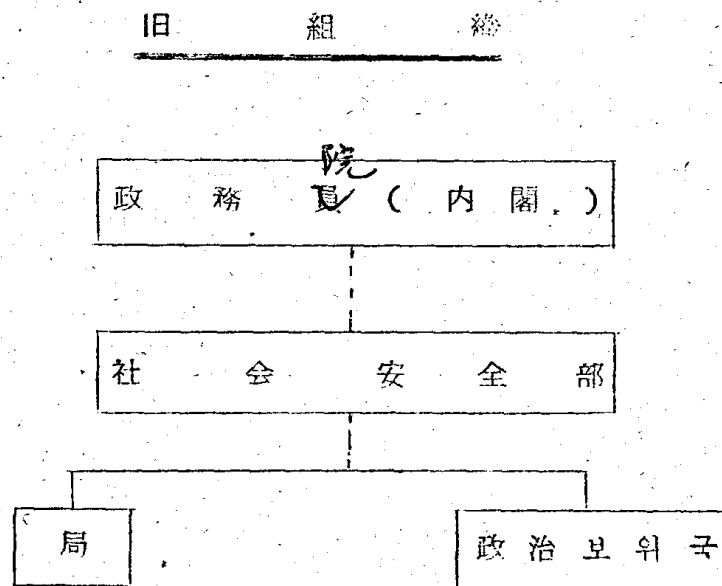
여기에서 응당 本論文과 관련하는 것으로서 問題點이었던 앞으로 새로운 金正一勢力인 軍事傳統과는 人的으로나 세력적으로 分離되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權力調査기관으로서 이러한 調査官이 어떻게 軍部に 作用 할 것인가 하는 問題인 것이다.

國家 政治保衛部는 특히 軍部內에 中隊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三大革命小組”만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특수 분야인 軍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國家安全 보위부라는 것을 中隊라는 상당한 중견으로 특히 高級幹部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를 軍內部の 黨組織과는 別途로 감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인 것이다.

金日成은 사실상 軍部內의 黨組織까지도 信用 할 수 없다는 것이며 “軍黨 一致”라는 것을 前提하면서도 二重的인 黨組織인 “三大革命小組”라는 것을 표면으로 하여, 다시 陰性的 軍을 감시하기 위한 조직으로 活用 신설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는 金正一 後繼問題와 相關한 權力關係에 있어서 金正一이라는 軍과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世代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軍의 重要나 黨軍의 人的인 權力的인 分離過程에서 이를 계속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軍에 對한 調査기관을 신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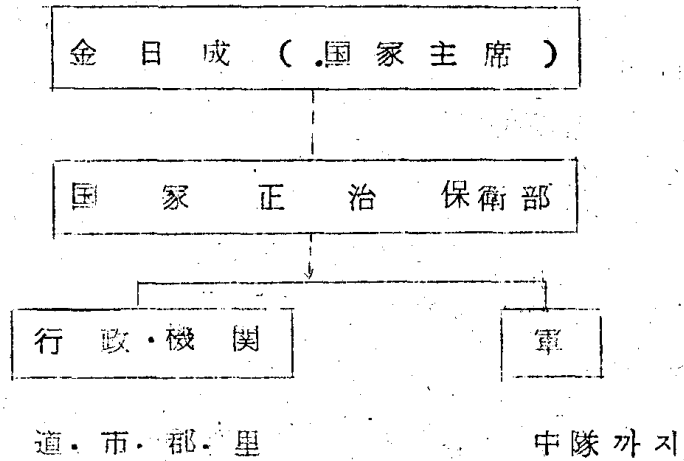
국가정치보위부를 국가주석하에 둠으로서 사실상 國家主席과 最高 司令官, 내각수반을 겸하는 北韓헌법으로서는 사실상 權力中心部에서

軍을 직접적으로 감시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軍에 대한 통제기구, 혹은 調査기관을 創設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다. 軍의 中隊까지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軍의 完全 統制를 앞으로는 단순한 당적인 통제가 아니라 完全한 國家政治 보위부에 의한 통제 下에 두겠다는 것으로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그 組織을 圖表로 보면, (註17)



註 17) 『北朝鮮研究』 (1975.9月号) p.22

新 組 織



이 組織表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물론 큰 變化는 党軍關係의 權力的인 통제체통이 크게 달라졌다는 事일 것이다. 完全히 軍에 對한 통제를 金日成 스스로가 직접 개인적인 「베이스」에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나 中隊까지 장악한다는 形式은 강력한 軍에 對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가정치보위부의 活動分野는 다른 分野와 함께 金正一 後繼問題에 對한 불만 불평을 갖는 高級幹部에서 부터 물론 軍을 포함한 各계 各층의 새로운 성분 調査를 3단계에 걸쳐서 進行했다는 것이다.

金正一後繼過程에 對한 國內的인 安全을 기도한 것이며, 國內問題 특히 軍을 포함하는 動요를 事前에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앞으로 研究할 焦點은 과연 이중삼중의 權力構造下에서 조직이나 權力的인 재편성과는 달리 金正一에 對한 軍部の “心情的”인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軍部가 金正一의 이러한 權力的인 통제와 달리 별도로 軍이 金正一에 對한 反感·反對라는 감정이 黨과 軍部라는 단순한 각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金正一 後繼라는 問題와 軍과의 關係가 어떻게 進行할 것인가 하는 問題인 것이다. 즉, 軍과 黨이 過去와 같이 는 性格이나 性質上 一致를 보지 못한 때에 오는 黨軍關係, 혹은 軍部가 政治와 部分的으로 “分離”될 때에 오는 問題點을 調査 研究할 일인 것이다. 現在로서는 資料의 부족과 결여로 일단 여기에서 취급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軍의 金正一에 對한 評價 즉, 국가정치보위부나 “三大革命小組”라는 것을 통한 권력장악 과정에서 軍의 反應 혹은 役割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하는 問題가 重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實際적으로 “三大革命小組”라는 特殊組織의 軍에 對한 關係에서 특히 重要的한 軍의 명령계통에서 “三大革命小組”, 당계통과 명령계통의 실제적인 계열화가 어떻게 進行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黨이름으로 金正一의 공식명칭이 直黨部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軍의 명령계통에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지 하는 問題도 研究의 問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研究로 남겨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現在로서 結論할 수 있는 것은 “三大革命小組”와 “국가정치보위부”라는 새로운 軍에 대한 통제기구가 새로운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는 點이 분명한 것이며, 이의 영향을 측정하는 일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일단 “組織”上으로 볼때에 앞으로 “軍部”라는 것이 北韓에서 問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軍의 分離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 4. 金正一의 登場과 北韓의 軍事傳統 問題

本稿은 金正一을 中心한 새로운 權力形態의 進行과 함께 과연 北韓의 軍事傳統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問題를 論한다. 다만 여기에서도 資料의 부족과 研究資料의 부족은 絶실한 것이다. 그러나 最少限 理論的인 근거를 通해서 적어도 北韓의 軍事傳統이 어떻게 變質 할 것인가 하는 理論의 問題을 論하는 것으로도 重要하며, 意味가 있다고 評價되어 여기에서 金正一의 組織的이며 權力的인 確立과정에서 北韓의 全軍事와 軍事傳統에 미칠 영향을 보기를 한 것이다.

軍事傳統의 變化 可能性은 이상에서 본 權力關係나 組織이상으로 重要한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軍事傳統에 있어서 考察해야 할 問題點은 金日成의 “빨치산”을 기점으로 하고 다시 韓國戰爭을 通한 “별오리”會議<sup>18)</sup>에서의 반성에서 나타나는 오늘날까지의 軍事傳統과 金正一後繼問題가 관련하는 앞으로의 軍事傳統과의 区分이 어떻게 展開 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이미 이러한 軍事傳統이나 基本的인 발상의 變化는 8.18 事態등을 通해서 評價되고 8.18 事態가 金正一 中心의 軍事 발동에서

---

註 18) “北韓軍事戰略資料集”(極東問題研究所) ('74. 8刊).  
pp. 159 - 180 參照.

基因한다는 外部의 軍事的인 評價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적어도 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部分的으로 시인해야 하리라 본다. 그 變化가 무엇인가하는 것이 問題인 것이다.

金日成의 軍事路線은 現在의 時點에서 評價 할 때에는 이미 “보수적인 路線”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軍事的인 보수성은 韓國戰爭에 對한 “反省”에서 基因한다고 본다. 특히 “별오리” 會議를 通하여서 金日成의 軍事傳統은 基本的으로 “전술적인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별오리”반성으로부터 現在까지의 軍事強化는 韓國戰爭時와 같은 “전술적인 발상”으로부터는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金正一은 “빨치산”이라는 軍事傳統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金正一은 이러한 “빨치산”이라는 軍事傳統을 이어 받기 위해서 金正一이 “빨치산”時에 탄생한 것이라느니 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基本的으로는 金日成의 過去軍事傳統과는 일단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金正一은 韓國戰爭을 經驗한 世代가 아님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金日成의 軍事傳統은 韓國戰爭을 通하여 얻어진 쓰라린 敗戰 經驗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通하여서 오늘의 北韓의 軍事戰略이나 軍事傳統을 確立시켜 온 것이다. 그러나 金正一에게는 이러한 軍事的인 經驗이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金正一 이후의 軍事傳統은 적어도 “모험적”이며 불안한 軍事要因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金日成의 軍事的인 발상은 韓國

戰爭을 통해서 세련되었다고 보는데서 “보수적”이라고 評價 할 수 있는 것이다. 金正一의 앞으로의 軍事的인 발상은 8.18 事態와 같은 軍事的인 모험을 들발적으로 감행하는 金日成일 때 보다 不安定한 時期로 들어 갈 것이다.

둘째로 따라서 金正一의 軍事路線은 金日成의 軍事路線보다는 훨씬 下位의 軍事路線이 될 것이다. 아래의 예측적인 特徵을 보면;  
첫째: 軍事的으로 下位의 次元을 유지할 것이다.

즉 金日成 스스로가 軍事人格으로 볼 때에 “戰術的”인 人格(註 19)이었고 그 발상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韓國 戰爭時도 그 自体가 戰略的인 戰爭으로 시도하였다고 보다는 戰術的으로 試圖한 戰爭이었다. 그 以後의 軍事的인 시도도 역시 戰術的이었기는 하다.

그러나 “별오리”會議를 통한 軍事 반성 이후는 그래도 空軍의 강화라던가 비교적 보다 폭이 있는 技術적인 軍事 傳統이나 발상을 하여왔다.

그러나 이에 비해 金正一의 軍事路線은 앞으로 “모험적”이며 “들발적”인 군사 발상을 시도 할 것이라고 평가하여야 한다.

즉 金日成보다 더 한층 “技術적”인 발상을 시도 할 것이라고 評價한다.

---

註 19) 이 問題에 關하여서는 “北韓政治論”參照 pp. 258-266 參照.

이러한 意味에서 軍事的으로는 下位の 次元을 벗어 날 수 없으며, 따라서 金正一의 군사발상은 상당한 기간 “下位の 技術적”인 발상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金日成과의 대조가 그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軍事的인 展開에 있어서 상당히 “微視的”인 즉, 잔 재주에 속하는 軍事的인 技術이 確立되어 갈 것이라고 본다. 이는 上記한 모험적인 軍事와도 관련된 것으로서 순수하게 軍事的으로 微視的”인 技術이 軍事傳統이 確立 되어 갈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은 앞으로 韓半島에서 確立될 韓美間의 戰略的인 軍事구상이 確立되면, 될수록 北韓의 軍事는 “戰術的”이며 “微視的”인 군사기술이 活用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要因은 앞으로 “四大軍事路線”이라든가 하는 것을 基礎로 하여 微視的인 軍事路線이 金正一時에 들어 간다면 발달하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 이는 8.18 事件과 같은 거의 軍事的인 事件으로 볼 수 없으리만큼 非軍事的이라 할 수 있을 “微視的”인 方法이 軍事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 인 것이다.

셋째: 그러나 金日成이가 살아 있는 한 金正一의 軍事的 發상은 계속 金日成의 영향이나 통제를 받으리라는 點이다. 金日成을 中心한 吳振宇등의 尙속 “빨치산”그룹이 살아 있는 限은 軍事的인 問題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金日成의 통

제 下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물론 하급 지휘관까지 “배운사람”이어야 한다는 金日成의 말에서 보듯이 軍事傳統에도 “老幹部”의 退進을 예고하고 있기는 하나, 金日成의 基本的인 軍事的인 “保守主義”의 性格은 金正一의 軍事的인 모험이나 기타 微視的인 군사발상에 대하여서 제동을 가할 것이라고 본다.

金日成이나 金正一의 權力을 추진하는 吳振宇 등의 세력이 살아 있는 한 金正一의 軍事的인 발상은 계속 統制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새로운 軍事傳統과 「테크노크라트」의 영향이다.

앞으로 北韓의 軍事 속에는 軍部와 「테크노크라트」間的 軍事上的 傳統에 대한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다고 본다. 金正一 중심의 30代는 基本的으로 韓國戰爭을 教科書에서만 배운 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金正一 中心의 30代가 이미 “三大革命小組” 등의 조직을 통해 軍部に 까지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軍部에 대한 “테크노크라트”의 영향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問題는 軍과 党的 部分的인 区分이라는 観点에서도 重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現在로서는 金日成과 吳振宇등의 完全한 北韓의 基本的인 세력을 基礎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기본 勢力과 「테크노크라트」間的 区分은 명백해져 갈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갈등은 이미 金正一의 權力 등장과정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 「테크노크라트」과 軍部와의 갈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는 이러한 전반적인 영향은 필히 北韓 軍事 전반에 對한 “再組織” 혹은 軍事戰略上的 재편성을 수반하리라고 예측하고 있

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징조는 最近 일련의 軍事的인 紛爭이나 이러한 處理過程에서 北韓의 變化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8.18 事件이라는 軍事事件을 분기점으로 하여, 北韓의 軍事的인 環境이 變하고 있는 것이 그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北韓의 軍事와 政治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하는 問題와 관련하는 것이다. 北韓의 軍事와 政治의 連結方式이 過去의 黨과 軍의 關係가 어떻게 變할 것인가하는 問題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評価되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過渡期”의 重要性이다.

● 金正一의 後繼問題 기간중 이라는 “過渡期”는 軍事的으로 매우 重要的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過去의 軍事傳統과 새로운 軍事傳統間의 갈등이 야기되는 이 時期를 우리는 “過渡期”라고 한다면 이러한 “過渡期” 現象이 야기 될 때에 基因하는 軍事的인 問題點은 특히 8.18 事變에 보듯이 重要的 點이라고 할 수 있다. 過渡期는 이러한 의미에서 重要的 期間이 될 것이다. 過去의 軍事傳統과 새로운 軍事傳統이 分離되고 다시 재조정되는 時期인 것이다.

이에 대한 細密한 觀察은 必要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 結 論

最近 北韓의 權力構造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金正一 後繼問題를 둘러싸고 質的이며 構造的인 權力的 變化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있어서도 특이한 것은 金正一이 등장하면서 “三大革命小組”라는 政治組織을 기반으로 北韓의 權力構造를 기본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며, 資料가 허용하는 가능한 한 과거의 黨軍關係의 一致와는 다른 權力的인 양상을 적어도 理論의 틀과 시발을 시도하여 보려 하였다.

研究의 문제점의 제기는 金正一과 그 權力 기반인 “三大革命小組”라는 것이 과거의 金日成의 軍事傳統이나 黨軍關係의 일치와 다른 계층이나, 政致組織이 軍部와 그 계층間的 “分離作用”이 시작 되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軍部라는 것이 앞으로 政治的 역할에서 새로운 權力층과 分離도 될 수도 있다는 問題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黨軍의 부분적인 분리는 金正一의 등장과 함께 제기되는 것이다.”

오늘날 北韓의 “黨”과 “軍”이라는 權力的인 의미에서 同一性이나 교환성에서 처음으로 金正一 “後繼問題”를 기점으로 北韓에서 “軍部”라고하는 概念과 黨組織上的 分離를 생각 할 수있게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인 것이다. 이 점을 論하였다.

金正一의 權力등장을 支持하는 세력은 吳振宇 등의 기초적인

北韓 勢力인 것이다. “老幹部” 등이다. 또한 金日成의 직접적인 “意思”에 의해서 吳振宇 등이 金正一을 權力의 座에 밀고 있다는 點이다. 現在로서는 金正一과 吳振宇 등 기초적인 勢力間의 갈 등은 이러한 의미에서 없다고 볼 수 있다.

金正一後繼問題에서 重要한 점은 “三大革命小組”라는 黨 위의 黨組織이 또 하나 생겼다는 점이다. 이 點은 대단히 重要하다. 過去의 黨軍一致라는 각도에서 別도의 金正一의 組織이 黨조직과는 別도로 조직되었다면 이는 필히 黨軍關係에 영향을 주게 되며 軍 內部的 組織上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實際上 “三大革命小組”는 “中隊”까지 이미 瓦解되어 있는 것이다. 軍部에 대한 영향은 黨組織과는 別도로 새로운 組織의 變化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와 함께 北韓의 權力組織은 다양화하고 있다. 즉 “政治보위부”의 독립과 이의 主席下의 직속화가 그것이다. 이는 “三大革命小組”가 함께 새로운 黨組織과는 別도의 組織인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역시 軍部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와 함께 깊이 영향을 주고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黨組織이라는 軍部內의 黨조직과는 전면 別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보위부”의 독립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要因은 과거의 黨軍關係와는 많은 차이 點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있는 것이다.

다음 문제는 金正一이라는 韓國戰爭을 경험하지도 못한 새로운 世代의 등장은 필히 과거 金日成의 軍事傳統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는 點이다. 金日成의 군사전통은 “빨치산”이라는 것을 그 기원으로 하여 많은 풀이를 하여 왔다. 그러나 “빨치산”과는 관계없는 「테크노크라트」의 등장은 많은 問題點을 軍事傳統이라는 각도에서 문제점을 던져 주게 될 것이다. 적어도 過去의 軍事傳統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